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23년 7월 28일(금) (음력 6월 11일) Пятница 28 июля 2023 г. № 29 (1204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환경 개선 공모전에서 сахалин주의 6개 이니셔티브 수상. (сахалин 주정부 제공)

сахалин 사업가150여명 국제 시장에 진출

сахалин주 수출지원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сахалин 기업 대표들은 상담과 무료 교육을 받고 해외 전시회에서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сахалин 주 경제 개발부 홍보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즈니스 및 관광 방문을 위해 중국이 개방된 것이 아주 중요했고 이번에 сахалин 사업가들이 광저우에서 열린 Guangzhou International Travel Fair(GITF)와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한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FIFE) 두 행사에 비즈니스 참가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상반기에는 전시회 참가를 조직하는 것 외에도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 행사를 제공했다. сахалин 기업가들은 4번의 웨비나와 2번의 대면 세미나에 참석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물류, 마케팅 등 수출 활동의 특수성에 대해 배웠다. 6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을 받았는데, 독립 국가 연합 및 중국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들과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연방 예산, сахалин주의 정비프로젝트 실행에 6억 5천만 루블리 추가 할당

극동 지역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 러시아 공모전에서 6개의 섬 이니셔티브가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로 향후 2년간 연방 지구에 있는 총 50개 지역이 개선될 예정이다. 전 러시아 대회 결과는 러시아 연방 정부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실무 방문을 위해 도착한 7월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되었다.

2023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가 프로젝트 "주택 및 도시 환경"의 일환으로 극동 지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경 프로젝트에 대한 두 가지 콘테스트가 열렸다. 1차 선정 결과, 32개 도시 및 마을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30억 루블리 이상이 할당되었다. 두 번째 공모전에 제출된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50억 루블리가 할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сахалин 지역은 첫 번째 경연 대회로부터 5억 루블리를 받았다. 이 기금 덕분에 쿠릴스크의 60년 옥짜브리 거리에 있는 전망대와 보행자계단, 돌린스크의 안타르니 공원, 코르사코브의 크라스노플로트스카야 거리에 있는 소공원,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로가트카 강 제방의 전망대 개선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두 번째 선정 결과에 따라 сахалин 지역은 6억 5천만 루블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와 돌린스크는 이번에도 수상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돌린스크는 스포츠건강회복을 위한 공간인 안타르니 공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문, 우물, 스포츠 파빌리온, 어린이 놀이터 및 운동장, 정자 설치를 할 예정이다.

쿠릴스크시에는 '춤추는 나무' 소공원이 생긴다. 이 장소는 가동형 야외 가구, 휴식 공간, 산책로, 건축 조명 요소 및 작은 건축 양식의 어린이 놀이터, 대나무 숲이 있는 열린 공간이다.

코르사코브가 강변 영토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카페, 어린이 놀이터 겸 운동장, 물 접근성을 갖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세웨로쿠릴스크의 두 번째 쿠릴 해협 제방 개선 프로젝트인 '파라무르를 느끼라'의 일환으로 강바닥을 보강하고 해양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쌍안경, 낚시터, 포토존, 전망대, 스포츠 및 어린이 놀이터, 바베큐장, 그네 등을 설치해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흙스크에서는 소베트스카야 거리에 평화 광장이 개선될 예정이다. 광장에는 분수대, 장식용 포장 도로, 잔디, 작은 건축 양식, 화단 및 나무와 관목 식재가 그림을 완성한다.

"이러한 대규모 대회에 참여하면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연방 정부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공간, 스포츠 및 사교 장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라고 сахалин주 주택공공리부 장관 나탈리아 쿠프리나가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임대 주택, 극동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어

극동연방관구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시행은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 대표가 극동지역 사회경제개발문제로 주재한 정부위원회 상임간부회의에서 검토되었다.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 및 지역 예산의 보조금으로 주민들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극동 지역에 최소 1만 채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 복지 기금에서 870억 루블리를 할당했다.

극동 지역에서는 아파트 총14,179가구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정부가 할당할 자금은 지역 주택 개발에 대한 좋은 투자입니다. 극동 지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면 자격을 갖춘 인력을 현지에 유지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외딴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연방 예산의 자금으로 '극동 연방 지구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극동 단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비용

과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가 언급했다.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000채의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며, 첫 번째 임대 아파트가 곧 제공될 예정이다.

극동 지역의 주지사 일부는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сахалин주 지사에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대적이고 편안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지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섬에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과학 활동, 새로운 산업에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방 당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곧 50,000평방미터의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년 짓는 주택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단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연간 10만 평방미터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향후 수십 년 내에 100만 평방미터를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지사가 밝혔다.

새고려신문	<h2>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h2>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 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도전하는 최임복 선생

최근 우리 신문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실렸었다. 이번 기사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 지인에게 기사 대상이 될 만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늘의 주인공도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먼저 최임복(러시아 이름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씨가 사할린국립대 수석 정비공(기계공)으로 근무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다. 추천하는 분이 믿음만하고 진중한 분이어서 바로 연락처를 받고 통화를 해 약속을 잡았다. 최임복 씨와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1952년생인 최임복 씨는 마카로브구역 노워에 마을에서 태어나 서른 살 넘게 그곳에서 살았다. 자녀4남1녀 중에서 셋째로 태어난 그는 학교 교과목 중 수학을 가장 좋아했다. 대학도 가고 싶었으나 무국적자였고, 시골에 살고 있었으니 출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몰랐다. 그래서 시험 기한을 놓쳤고 다음 해에는 러시아어가 많이 부족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네가 농촌에 살고 있으니 너한테는 농업전문학교가 딱일 거야'라고 추천했다.

지인의 조언으로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습호즈(농업집단)에서 일하면서 3년을 공부했다.

농업집단에서는 운전기사, 트랙터운전자 등을 비롯해 여러 일을 했고, 나중에는 수석 정비공까지 했다.

책임 있고, 손재주 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 이런 일꾼은 언제나 최고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일하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도 비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최임복 씨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는 웬지 군대에 복무하고 싶었

다.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무국적자여서 이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소련 국적 취득 신청을 했고, 거절도 여러 번 당했다. 어느 날, 드디어 국적 취득허가가 나와 바로 군인모집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그 당시 군대 복무는 27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최임복 씨는 결혼도 한 상태였다.

결혼에 대한 결정도 그는 단호했다.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 것이다. 당시 그는 26세, 신부는 6세 아래였다. 인사를 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잔치를 했다. 지금도 최임복 씨에게는 가족이 최우선이다. "저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돈벌이 하느라 옆에 없었어요. 집 사람이 키웠지요. 지금 손자손녀는 좀 봐주고 있죠"라고 최임복 씨가 말했다.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가지 일도 했었고 1990년대에는 천식 진단을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해 장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몸 관리와 단련도 하고 있다. 자신만의 비법이라면 매일 찬물을 몸에 끼얹는 것이다.

당시에는 2급 장애인으로 취급 받았는데 지금은 천식이 아예 없어졌다고 한다.

2018년,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딸이 주장해 수술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다.

"그때 가족, 친척, 친구 등 모두가 돈을 모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최임복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인천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인천에는 조카 - 배다른 누나



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한국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그 조카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저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가 전쟁 이후 둘다 재혼 하셨어요. 아버님은 1916년생이었고, 어머니는 1925년생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1963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0세에 가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가족이 남아 있었어요. 부인과 딸입니다. 전 어른이 되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요. 1992년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부인도 만났는데 저를 아들 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절 항상 한국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누나, 조카와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해마다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최임복 씨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가족들과 친척의 도움에 대해 늘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코르사코프스키'습호즈에서 일하다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새 보금자리라고 생각했을 당시, 집을 마련할 돈도 없었다. 그때 친어머니와 장

인어른이 합쳐 최임복 씨에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주었다.

노워에 마을에 남아계시는 어머니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모시자는 제안이 들어와 최임복 씨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 동생에게 '1년만 기다려줘. 딱 1년만'이라고 했었다. 다음 해 그는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위한 2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아직 천식이 있는 상태에서 돈벌이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해냈다.

2012년 60세 나이에 그는 사할린국립대 수석 정비공(기계공)으로 입사했다. 그가 관리하는 차만 해도 60여 대에 이른다. 사할린국립대의 소속 기관 중 차, 기계 등을 교육하는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약 50여대의 낡은 차가 있었다. 3년 계약으로 입사한 최임복 씨는 그동안 경리관리디렉터, 총장 등이 여러 번 바뀌는 11년 이상 그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다. 올해 3월에 은퇴를 했는데 9월부터 다시 사할린국립대에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60세의 나이에 대학 공부를 시작해 졸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으로 사할린국립대 체육과에서 공부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스포츠를 즐긴 그는 배구, 농구, 체스, 탁구 등 안 해본 게 없다고 한다. 50이 넘어서는 민태출 태권도 사범을 찾아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민 사범은 처음엔 '이 나이에 말도 안 된다'고 거절 했는데 자꾸 설득했더니 '발을 위로 올려봐'라고 했다. 다리가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수업에 나오라고 허락했다.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태권도 기초는 잘 닦아놓았다고 최 선생은 말한다.

체육과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탁구 때문이다. 그는 15년동안 '에플'건설회사에 있는 탁구장에 다닌다. 강만규 회사 사장이 탁구연맹 회장이고 대학졸업장도 있는데 교육자 자격증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강 회장과 함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무사히 졸업했다. 이번에 대학에서 최 선생을 체육과 선생으로 초빙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최 선생은 탁구 심판 2급 자격증도 있다. 그는 현재 탁구장에서 주 3회 4시간씩 훈련을 한다. 게다가 탁구장 한 구석에 체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최근에는 다트를 구입해 다트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최임복 선생님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에서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 놀랐다. 특히 아버지의 병 고치는 데에 애쓰는 가족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최임복 씨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다. 울다가 웃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리고 손자녀들을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모습은 물론, 아내에 대한 애정도 가득했다.

"자녀들 덕분에 칠순잔치를 좋은 레스토랑에서 했었는데 사위가 그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3딸의 아빠로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만큼 나중에 우리 딸들이 저에게 해주었으면 여한이 없을 거라고요. 그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최 선생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그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일궈냈는지 느껴졌다. 항상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주었으면 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소공원' 프로젝트 시작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 건물 근처에서 7월 20일에 "체호브 소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체호브 소공원"행사의 "상인 거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수많은 판매장과 활기차고 다채로운 장소로 꾸며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돌로 만든 악세사리, 구슬로 만든 독창적 작품, 그림, 수제 장난감 및 인형 등 사할린 장인의 제품이 전시되었다. 모든 고객은 이곳에서 독특하고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행사는 "여름의 품에서"라는 댄스음악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성악곡과 클래식 발레가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여러 노래와 로맨스가 발표되었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큰 박수를 받았다.

"시간의 교차점"투어의 일환으로 행사 손님들은 체호브 작가의 삶과 창작의 마지막 기간에 대해, 그리고 사할린 극장의 역사, 소공원의 조각 작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지역 미술가들의 여러 마스터 클래스들도 펼쳐졌다.

어린이를 위한 여행 게임 "여름을 찾아서"와 보드 게임 "체호브의 길"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식을 테스트하고 안톤 파블로비치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하루 종일 4륜차를 타면서 19세기 분위기를 느끼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Чеховский сквер»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тие «Чеховского сквера» состоялась 20 ию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узе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работы «Чеховского сквера» привлекало внимание прохожих оживленное и яркое место, где была развернута ярмарка «На улице купеческой», с огром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торговых рядов.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делия сахалинских ремесленников: украшения из камней, оригинальные вещи из бисера, картины, игрушки, связанные и сшитые вручную. Здесь каждый покупатель смог найти что-то уникальное и неповтор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танцевально-музык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 названием «В объятиях лета». В рамках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и исполнены вокальные номера и классический балет. Всего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несколько песен и романсов.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были встречены очень тепло и получили громкие аплодисменты от зрителей.

В рамках экскурсии «Перекрёсток времени»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ли узнать о последнем периоде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а также о истории теа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и скульптурных композиций в сквере. Прошли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ы местных художников.

Для детей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игра-путешеств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В поисках лета», такж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Маршрутом Чехова», в которой игроки проверяли свою эрудицию и узнавали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о местах, связанных с Антоном Павловичем.

Весь день гости могли прокатиться на фазтоне, чтобы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XIX века и насладиться природой.

사할린 원주민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7월 말, "칼니의 부름"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이 사할린을 방문한다. 이는 비영리 파트너십 기관인 "소씨알니에 인베스티찌(소셜 투자)"에서 전한 내용이다.

이 영화는 사할린의 원주민, 그들의 역사, 관습과 문화, 현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할린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 머무는 젊은이들도 영화 속에 등장한다.

이 영화는 님프 문화의 창시자이고, 님프 알파벳 개혁 저자 중 한 명이며, 님프 알파벳, 님프 언어 교과서, 님프 학교 교과서, 님프 읽기책, 님프 언어로 번역한 러시아 고전 출판물의 저자 중 한 명인 작가 블라디미르 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셜 투자"에서 전했다.

체호브의 "사할린 섬"책의 일부를 러시아 국민 배우 보리스 셰르바코프가 영화에서 낭독할 것이다. 30년 이상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제작한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프로듀서인 안톤 흐레코프가 감독을 맡는다.

На Сахалине снимут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про коренные народы острова

В конце июл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дет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Зов Кални».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Агентство «Со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фильме расскажут о коренных народах острова, их истории, обычаях и культуре,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Героями фильма выступят и молод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острове.

(8면에 계속)

우글레고르스크시, <한 가정에서>축제 펼쳐

지난 22일(토) 우글레고르스크 시공원에서 제6회 <한 가정에서>축제가 펼쳐졌다.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개최하는 이 민족간 행사는 해마다 사할린 주내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한민족 문화와 부랴트 및 러시아인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로서 이번에 우글레고르스크에서 한민족 및 부랴트 민족 문화에 관한 마스터클래스들이 펼쳐진 가운데 특히 요리교실이 인기가 많았다.



"이 축제를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60여명의 아티스트들과 사회 활동가들이 우글레고르스크를 찾았다. 축제 자체가 재미있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우글레고르스크 시한인회 유경숙 회장이 전했다.



우글레고르스크 시민들은 이날 시식을 하면서 부랴트의 보오와(밀가루 반죽 많은 기름에 튀긴다, 과자 비슷함), 동포들이 만든 뽕새(왕만두 비슷함)가 '완전 맛있다'고들 했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은 러시아인, 카자크인, 부랴트인 및 한민족의 노래와 춤, 음악연주로 꾸며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로지나'문화회관 러시아 민속 예술단원들, '바이칼'동향인회의 가수과 민속 음악 연주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 그리고 '하늘'사물놀이팀의 상급 및 중급 그룹과 동포 가수 등의 멋진 공연은 지방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축제는 사할린주한인협회(박순옥 회장 대행)· 우글레고르스크시한인회(회장 유경숙)의 주최와, 사할린주 사회원·'바이칼'동향인회·'로지나'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문화회관·우글레고르스크 구역 행정부의 협력하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사진: 우글레고르스크 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주, 연초부터 약 150명의 젊은 전문가 재정지원 받아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농업 및 수의학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지원이 제공된다.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약 35만 루블리, 중등 직업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는 약 26만 루블리가 할당된다. 농촌 지역에 고용된 경우 각각 43만 루블리 및 32만 루블리를 지원 받는다.

젊은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주예산에서 2,200만 루블리 이상이 할당되었다. 재정 지원은 30세, 30세 미만의 전문가들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주, 시 또는 국가 기관과 최소 5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요한 조건은 고용 장소가 사할린 지역의 영토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사할린 지역으로 오는 젊은 전문가들

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본토에서 공부한 사할린과 쿠릴 출신의 젊은이가 많으며 이들은 고향인 사할린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지원자 다수는 곧 졸업장을 받고 취업 문제를 해결하면 지원자 다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150여명이 이미 이 지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걸 아직 적은 수치입니다. 작년의 경우 젊은 전문가 700여명이 지원을 받았습니 다."라고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장관 울가 오를로와가 말했다.

가장 인기 있는 취업 분야는 교육 분야이며, 의료 분야가 2위를 차지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취직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사회 지원 센터 지점에 문의해야 한다.

무인 항공 전문 기업, 사할린의 드론 생산에 관심 가져

무인 항공 분야를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T1"에서 사할린의 학생 교육용 드론 제작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이 기업은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들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전했다.

"국내 최초로 학생 교육용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할린 주에서는 특별 군사 작전 지역에서 군이 사용하는 드론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적용 영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개발 및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대표들과 만남에서 언급했다.

"T1"회사는 드론을 이용해 도로를 조사하고 사할린 숲의 화재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솔루션 중 하나는 폐수 배출에 대한 아니와 만의 환경 모니터링이다. 드론은 농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드론은 소형 항공기와 달리 비료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상당히 큰 항공기이며, 우리는 이런 무인 항공기를 섬에서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비롯해 여러 화물을 쿠릴열도로 운송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곳에서 학생 교육용 드론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았습니다.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경험을 러시아 전체로 확장하고 싶습니다."라고 "T1 아에로"사의 클러스터 관리자 콘스탄틴 사드린이 말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지부의 해양 연구 자동화 장비 특별 설계국의 기지를 이용해 작업하는 전문가들은 올해 계획된 1000대 중 700대 이상의 드론을 학생 교육용으로 이미 제작했다. 디자이너들은 소형 모델 "오사" 및 항공기형 드론 "오를레노크"을 제작한다.

드론 관련 교육은 이미 사할린 주의 수십 개 학교에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드론 조립, 보정, 프로그래밍 및 유지보수, 조종에 대한 기초를 배운다. 이 프로젝트는 9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尹대통령,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2차관 임명

(서울=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러시아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 [외교부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경제안보와 인권을 축으로 한 가치외교 등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외교 영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진 전 주러시아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명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장호진 대사가 외교부 1차관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현직 외교부 차관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은 정부의 한러관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이달 말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 긴급구호 함께 나선다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윤성호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신회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사진 재외동포청)

(서울=연합뉴스) = 재외동포청은 대한적십자사(한적)와 협력해 해외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동포 긴급 구호 및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해외 재난 상황에서 현지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의 경우 긴급 구호 및 지원은 법적·재정적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국제적·국내적 인도적 지원역량을 가진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업으로 그동안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했던 재외동포들을 제대로 보듬을 수 있게 됐다"며 "동포청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일시 모국 방문 시 건강검진 및 문화 탐방, 귀국 동포 역방문 사업 등을 더욱 확대하고 원폭 피해 재외동포 지원 사업도 함께하기로 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ым послом РК в РФ назначен Ли До Хун



26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азначил Ли До Хуна,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нимает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слом в России. Он сменит на посту глав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Москве Чан Хо Чжина, назначенного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ервым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Ли До Хун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дипломат, который занимался вопроса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ООН 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 возглавля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занималс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и и межкорейскими вопросам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ов страны - Но Му Хёна, Пак Кын Хе, Ли Мён Бака, Мун Чжэ Ина и нынешнего Юн Сок Еля. По данны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Ли До Хун приступит к работе в Москве в конце июля.

KBS World

В Углегорск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22 июля 2023 года в городе Углегорск прошел 6-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семье единой".

В этом год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Углегорск ожид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блюд корейской и бурятской кухн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и Бурятии.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радовала обилием различ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евцов и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емлячества Байкал", Углегор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РИ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Сун О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г.Углегорска в лице председателя Ю Кен Су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ОО "Землячество Байкал", ГДК "Родин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В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ллективы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танцевальные "Ариран" и "Химан", ансамбль барабанщиков "Ханьль".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Углегорс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РООСК)

Соратник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разведчика-нелегал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считают чудом одно то, что его им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28)

Ряд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власт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аверняка и люди из секретных служб... Вот он, типичный провал. Но, невероятным образом, обошлось. Тем более поразительно: ведь режим в стране – жесточайший, пронизанный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ью. Контрразведка бесцеремонная, приучившая поголовно все население к доноситечеству. У негала ни минуты на расслабление, постоянн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Все это сказывалось на здоровье, на зрении. Болел тяжело, но на ходу. Оставался ф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ым вжившимся в местные условия негалам высочайшего класса. Работы не прерывал, хотя из Центра предлагали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ернуться. Но кто вместо него? Ким был незаменим и понимал это, каждый раз извещая Москву, что продолжит. И даже когда сообщили, что он может попасть под подозрение из-за предательства иуды Олега Гордиевского, Ким рискнул остаться.

Приведу строки из хранящегося в Центре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го личного дела Ким Ен Чера, сменившего в 1978 году имя н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Будучи в стране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негала с чувством высо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тносился к выполнению поставленных задач,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ся с ними, проявил при этом высокие мор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качества, показал себя политически зрелым и оперативно грамотным разведчиком. В решении оператив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ействовал смело,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 с проявлением инициативы и творчества, добился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нкрет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Им добыта и направлена в Центр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ухо, официально, зато понятно. Разве не триумф?

Десятилетия шли. Не могли они не нести с собой перемен. Часто печальных. Брак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спался.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годами оставаться один на один с ночью. Ким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ей. Сообщи об этом в Центр. Изучал избранный, заговорил (да, именно так) и, получив разрешение, связал с ней судьбу. Обучил, и она помогала Киму, став радисткой-шифровальщицей.

Давайте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лово самому Герою,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яя его своеобразную манеру повествования, совсем не напоминающую официальную. Оставленные им воспоминания, скорее, короткие записи, это позволяют.

"Мама умерла, когда я был в командировке. В один из отпусков меня отвезли к ней на кладбище. Стояла зима, и все могилы были засыпаны глубоким снегом. Я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лся искать место, где она покоилась. Хотел встать перед ней на колени и положить к подножию памятного полученную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Звезду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едь это ее награда, она меня таким воспитала. Слезы катились по моему лицу, и я ничего не мог с этим поделать. Про себя попросил у матери прощения за то, что так долго к ней ехал".

Он любил сына. Вырываясь в Москву, встречался с ним. Признавался, что "на земле больше нет никого, кроме этого единственного, живущего вдалеке от тебя сына...". Мальчику объяснял постоянное отсутствие отца: он служит глубоко засекреченным испытателем космической техники. И тот верил.

"Сын долгое время даже не подозревал, кем я работаю. Будучи в отпуске, я попросил у на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азрешени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ему ребенку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аграды, в том числе и Звезду Героя. Санкция была получена, и вот, на конспиративной квартире, я неожиданно вышел к сыну при полном параде, в пиджаке, тяжелом от орденов и медалей. Немая сцена... Хороший был мальчик. Скромный, трудолюбивый, послушный. Из него со временем могла бы выйти неплохая смена для меня. Жаль, что так рано ушел из жизни..."

Весь от гибели сына настигла отца в чужой стране. Мальчик утонул во время купания в пионерлагере. Не было в жизни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ничего более трагичного.

"...В ходе моей работы я встречался с многими хорошими людьми. Я всегда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то, что Он свел меня с этими достойными людьми. Встречались порой в их среде и недостойные, но они все ушли, они были не в состоянии вынести подобное бремя.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особую смелость иметь. Не каждому дано такое качество.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припоминаю произошедшее со мной в связи с трагической смертью моего сына. Я очень долго не мог смириться с этим,

вынести это. Вечером я получил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моего сына не стало. Было где-то около девяти. Машину я оставил километрах в двух от места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Центра. Я на место контакта машину никогда не вожу. Я ее бросил и прошел пешком.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лишний раз проверился, нет ли "хвоста". Работы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я ответственно относился к подобным вещам. Но когда я получил ту весть, я сам не могу понять, как это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со мной было. Это как бы вторая жизнь, паралле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в которой делаешь все на автомате, не понимая, что с тобой происходит. Бывает у человека такое состояние. Т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ышел на встречу со мной, испугался, он меня приобнял, не зная, как меня успокоить. Но я вел себя внешне спокойно: не кричал, не прыгал, ничего. Я просто как будто сознание потерял. Я просто шел и шел себе. А он... По нашим правилам он должен был давно уйти, сообщил и ушел - вот как над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й. А он шел рядом со мной. Туда, где стояла моя машина. Лишь за несколько шагов до нее, он знал ее номер, он отстал, сказав: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будьте осторожны! Если что, я готов с вами поехать". Я ему отвечаю: "Ради Бога, не надо! Этого не надо делать. Сначала вы уходите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сюда, потом я уеду". Потом уже, конечно, он исчез. Я сел, поехал. Вы знаете, куда я поехал? Я сам не знаю, для чего я туда поехал. Поехал в другой крупнейший город,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в пятистах километрах. И вот, по так называемому хайвею, скоростной дороге, по которой можно в ночное время гонять со скоростью двести пятьдесят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я и несся. Обычно я в тот город ездил два-три раза в году, на скоростном поезде. На машине туда ни разу не добирался. Я ехал, ехал. К утру прибыл туда. Как будто какие-то дела там у меня есть. Я сошел с этой скоростной дороги, машинально куда-то свернул, в какой-то переулок, все еще не понимая, куда приехал. А потом внезапно как бы пришел в сознание: "Зачем я здесь?" Всю ночь ехал и к утру только немного пришел в себя. Я сильно рисковал. Меня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подстерегала масса опасностей, тысячи опасных моментов. Это, во-первых, скорость. И потом хайвей почти все время как бы по мосту проходит. И только утром я осознал, насколько опасной была та поездка. Чтобы вынести такое известие, нужна сверхчеловеческая сила. И вот его не стало... Стало быть, никакой цели в жизни больше нет. Да еще страна, которой ты служил (имеется в виду распад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1991-м. – Н.Д.), ее тож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Бывает и такое в нашей работе".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аботы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складывались для негала трудно. Чувствовал, что тучи над ним сгущались. Причина оставалась непонятной.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редавал кто-то из тех, кого полковник, возвращаясь временами в отпуск в Москву, считал своими. И здесь он был на грани трагедии, которую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Центр сумел предупредить Кима об опасности. Командировка длиной в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а завершена.

Многолет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ветск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Юрий Иванович Дроздов, никогда не называя имени Героя-негала, рассказывал мне о встречах с Евгением Ивановичем Кимом уже после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Полковник переживал распад страны, которой служил, как личное горе. Не мог смириться, принять вроде бы логичные объяснения. И эта боль тоже была с ним, не уходила. Он не давал волю эмоциям, хранил глубоко в себе. Наверняка от этого нести тяжесть всех утрат было еще тяжелее.

Но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не сдавался. Помогал молодым преемникам, выбравшим ту же крутую дорогу. Был с ними предельно искренен.

"Чтобы стать разведчиком, нужно быть универс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м, образованным человеком... И потом, нужно бесконечно любить и свою Родину, и страну, где ты находишься... Нужно быть бесконечно добрым человеком. И нужно, чтобы вас любили за это все и всюду.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ебе безопасность, вы 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ни единого врага. Трудолюбие также залог успеха в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е. При подборе кадров нужно именно человека трудолюбивого,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искать. Никто за вас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делать. Нелегальная разведка - это именно "один в поле воин". Даже если нелега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и женился на иностранке, эта его жена не должна знать кто он. Такой закон".

Трагедия унесла его жизнь 12 ноября 1998-го. Переходя улицу, был сбит машиной.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Неделя.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106(905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ООН проводят семинар п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е

С 24 июля по 10 август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РК и Фонд ООН в области народонаселения (UNFPA) проводят 10-й семинар п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е и её решению. Участники семинара обсуждают процессы и механизмы сверх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а также возможные пути решени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В семинар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городах Сеуле и Тэчжон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270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экспер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демографии из 30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Чан Хо Чжин, помощник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Уэнди Шерман и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Такэо Мори в ходе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24 июля, договорились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аммита лидеров своих стран. Они отметили,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трёх стран вышло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дстоящий саммит станет поворотным моментом в укреплении связей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жо Байде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ы состоится 18 августа в Кэмп-Дэвиде,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в штате Мэриленд в ста километрах от Вашингтона.

В РК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меняю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оставшиеся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Это обязательный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бесплатное лечение заразившихс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омимо этог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будут закрыты временные центры ПЦР-тестирования. Данные меры реализуются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этапа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снижению уровня опасности пандемии со второго до четвёрт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онавирус попадёт в одну категорию с гриппом.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раны вернётся к допандемийному режиму работы.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определё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ольничных коек для заражённых выделяться не будет. При этом сохранится рекомендация соблюдать пят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заражённых. Между тем, в последние три недели фиксируется 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ё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гриппом и простудой. Это может внести коррективы в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К сохраняется высший уровень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наводнениях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6 часов утра 24 июля 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дождей регионах эвакуированы 18.418 человек, 2.044 из них пока находятся в пунктах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ливных дождей погибли 47 человек, 3 человека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35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различной тяжести и находятся в больницах. Затоплены полностью или частично 1.776 домов. Работы по их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завершены на 74%. Повреждены 7.683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а, 70% из них восстановлены. Погибли 872 тысячи голов птицы 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В стране сохраняется высший уровень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наводнениях.

Деловым кругам РК могут разрешить посещение Украи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 о частичном снятии запрета на посещение Украи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ах её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Д РК, данный вопрос начал обсуждаться после кратко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в Киев,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было дано обещани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ддержку Украины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ах её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апрет на поездк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Украин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й идут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действует с февра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дна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разрешения на такие поездки получают.

Эпидемия гриппа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РК призывают население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гриппа, эпидемия которого продолжается,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гар лета. Как сообщили 25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период с 9 по 15 июля уровен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гриппом составил 16,9 человека на тысячу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ёх последних недель наблюда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бычно в летнее время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но в этом году число заражённых не снижается.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 43 на тысячу человек - наблюдается среди детей от 7 до 12 лет. Кроме т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риновирус и аденовирус.

(RKI)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КНДР и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ергей Шойгу, находящийся с визито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 российской военной делегацией,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КНДР Кан Сун Намом, сообщило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По сообщени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AFP и россий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ТАСС,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распространило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говорится: «Сегодн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оссии Шойгу провел в Пхеньяне встречу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ан Сун Намом».

Ссылаясь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ак на «важного партнера» России, Шойгу сказал: «Я уверен, что сегодняш-

няя встреча поможет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обороны дву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ТАСС и другие источники.

Ранее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сообщило, что министр Шойгу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на три дня с 25 по 27 июля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и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70-летию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министр Шойгу, который руководит вое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на Украине, может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 импорта оружи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айт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Туристский поток изменил вектор на юг

Пусан, 24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Пусан открывает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благодаря его пляжам, приятному климату и более медленному темпу жизни, а также его ассоциациям с супер группой Bangtan Boys, также известной как BTS.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 кредитным картам там сейчас превышают расходы Сеула и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поскольку отдель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и руководствуются Instagram, а не усилиями Корей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туризму, которая, как правило, 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BC Card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 кредитным картам с января по май и обнаружила, что сумма транзакций в Пусане выросла в 11,9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Даже с учетом резкого роста после отмены карантина, рост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заметен. Расходы иностранцев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в восемь раз в Сеуле и в четыре раза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редний рост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 семь раз.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Пусан из-за рубеж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крупные круизные лайнеры также начали снова швартоваться в порту.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рта Пусан,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 2020 по 2022 год в Пусане не пришвартовалось ни одного круизного судна, но с марта по май этого года там пришвартовалось 46, каждое из которых перевозило тысячи пассажиро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бытие 101 круизного лайнера, что почти равно числу, наблюдавшемуся в 2019 году до пандемии.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туризму Пусан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город посетили около 260 000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усан прочно занял место на карте среди поклонников К-поп, проведя концерт, на котором выступали многие группы, продвигающие заявку город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2030 год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фанаты BTS посетили город, чтобы отметить 10-ю годовщину своих кумиров, потому что участники Jung-kook и Ji-min родом из Пусана.

23-летняя Катрина Вальтбауэр из Вены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а Южную Корею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Ярая фанатка BTS, она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впечатлена, что хочет вернуться. «Я купила еще один билет на самолет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следующий месяц», – сказала Вальтбауэр. – «Я планирую поехать в Пусан на этот раз в рамках паломничества BTS».

Сотрудник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туризму Кореи сказал: «Улучшен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и влияние К-поп делают Пусан ведущи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бьют рекорды

Сеул, 24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достигли нового рекорд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поскольку мировые компании покидают Китай на фоне кар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них со стороны СШ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сообщило, что прямые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ыросли на 54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до 17,09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легко превысив предыдущий максимум в 15,7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8 года. Всего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ивлечении 1649 инвестиций, что на 0,7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Инвестиции компаний США выросли на 24 процента до 3,6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а из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 на 145 процентов до 4,2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из Китая, Гонконга, Сингапура, Тайваня и Малайзии также вырос на 33 процента до 3,2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из США и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особенно возросли в передовых секторах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аких ка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аккумуляторы и биополя, а также ветроэнергетика, водород и другие новые отрасли энергетики.

Инвестиц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дскочили на 663 процента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техники и электроники, на 464,1 процента в химическом машиностроении и на 78,3 процента в фармацевтике. В секторе услуг рост составил 447,3 процента в сфере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и аренды, 250,6 процента в сфере жилья и питания и 185,5 процента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и страхования.

Инвестиции в новые проекты, то есть в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ли сооружений на свободных землях, выросли до 12,64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в то время как инвестиции в слияния и поглощения выросли до 4,4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РК надеется на помощь РФ и КНР в поддержании ми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ражает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контакты России и Кита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несут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а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25 июля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комментируя визит китай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й в Пхенья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 Сеуле «внимательно наблюдают» за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ключая контакты Пхеньяна и Пеки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деется на то, что Пекин сыграет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Пхеньян прибыли делегации Кита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секитайского собрания народ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Ли Хунжунюем и Росси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Сергеем Шойгу. КНДР принимает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впервые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в 2020 году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KBS World

Минтруда РК проверят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К проводит проверку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иностранцев,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Данная отрасль испытывает острую нехватку рабочих рук, и эта проблема решается за счёт массов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Однако по вине работодателя они часто размещаются в малопригодных для жилья контейнерах и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йках. С 26 июля по 31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добровольные заявления от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б условиях проживания рабочих. Целью проверки является выявление случаев, когда работодатель получает разрешение на найм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услови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хорошего жилья, но данное условие не выполняет. Если работодатель добровольно сообщит об этом, ему даётся срок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исправление ситуации. Проверк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с начала сентября до конца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верит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чих в 4.600 хозяйствах, получивших разрешение на найм иностранцев.

KBS World

Еще 6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ыделят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разу 6 островных инициатив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ля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сего в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двух лет благоустроят 50 объектов.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стоялось наканун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уда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прибы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 2023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проведены два конкурса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го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отбора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32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 На гранты для них направлено свыше 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конкурса, выделят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Так,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конкурс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л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выигранным средствам ускорился темп работ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и на улице 60 лет Октября и пешеходной лестницы в Курильске, Янтарного парка в Долинске, сквера на улице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в Корсакове и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и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торого отбора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еще 6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акже среди городов-победителей вновь оказалис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Долинск. Так, в Долинске продолжи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портивног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Янтарный парк. Второй этап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установку ворот, обустройство домика для родника, спортивного павильо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и площадки для воркаута, установку беседок.

В 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оявится Сквер танцующих деревьев. Это открытая площадка с мобильной уличной мебелью, местами отдыха, прогулочными маршрутами, элементами архитектурной подсветки и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малых архитектурных форм, бамбуковой рощей.

Территорию вдоль реки Корсаковки планируют сделать новы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с зонами отдыха, кафе, детски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выходами к вод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Втор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пролива «Почувствуй Парамушир»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укрепят русло реки, установят бинокли для наблюдения за морскими животными, оборудуют место для рыбалки, фотозону,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а также установят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зону барбекю, качели для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В Холм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площадь Мира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Там выполнят комплексную реновацию центральной прибре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площади появятся фонтан, декоративное покрытие, газоны,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дополнит картину цветники и древесно-кустарниковые насаждения.

– Участие в таком масштабном конкурсе открывае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гиона, помогает привлеч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ым инициативам мы значительно ускоряем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мест отдыха для всей семьи, площадок для спорта и общен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Такж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азработана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егионах. Деньги в виде бюджетных кредитов выделяются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транспорта, замену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2023 году на нуж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направили 3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субъекты ДФО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обнов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а также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ко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может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построить и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сетей и десятки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К примеру, на Сахалине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Уюн»,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микрорайоне «Южный»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люди видят эти изменения, какой эффект они оказывают на жизнь города. И в ней многие готовы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азвивать свою малую родину, делать ее лучше,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уделяют также решению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ах ДФО каждую вторую квартиру приобретают по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ьготным кредитом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уже более 900 семей.

– Конечно,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и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большинства регионов преобладают частные дома, поэтому развитию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уделяем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 каждой из ипотечных программ теперь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заем на их покупку либ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 шест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таких кредитов выдано уже 120 тысяч, почти на 45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еобходимо и дальше 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жизнь в малых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ениях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а со-

временному уровню, – сказал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омн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азработаны 11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их число вошли мер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подготовке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повышению мобиль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реновации городов.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и онкологи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началась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Заря Востока». Мастер-классы из операционных островного медучреждения транслируются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коллег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За два дня конферен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дробно рассмотрят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диагностики, лечен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онкопатологи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на остров прибыла экспертная делегация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линическ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 Это уже не первый мой виз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совместно выполняли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ую операцию при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м раке. В этот раз её повторим, но уже с учётом приобретённых за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знаний. Также проведём малоинвазивную операцию по удалению рака шейки матки и хирург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рака яичника, – рассказал Вице-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торака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два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монопортовой лобэктомии – удалению частей лёгкого с сохранением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остального органа. За ходом операций наблюдают около 20 местных и приезж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Те методики, которые мы будем выполнять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уже отработаны нашими врачами и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Но совершенству нет предела, обмен опытом и обсуждение практических ситуаций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лечения в регионе. Основной упор мы делаем на сокращение времени реабилитаци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пациентов – благодаря малоинвазивной хирургии пациенты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а сами операции длятся не дольш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 поделился главным врачом областной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диспансера Сергей Старцев.

Новосибирские коллеги пробу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два дня. Помимо практической части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и теории. В режиме ВКС к онкологам присоединятся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Такой обмен опытом – постоянная практика в областн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Уже в августе здесь состоится ряд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о онкоурологии.

Развитие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в профильном диспансер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становлено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маммограф, ОФЭКТ КТ, переоснащена абдоминальная операционна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Внедрение перед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лгождан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региона станет запуск ПЭТ-сканера. Установк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организма, признанную самой точной в онкологи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и первые сборы инструкторов проекта по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Будь готов!»

В течение полутора недель 40 мужчин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ли подготовку на Успенском полигоне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цы обучались основам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жизни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боров мужчины вернулись к своей работе и привычной жизни.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и опыт они будут передавать в районах своим землякам,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обучиться.

Участниками первых сборов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етераны специа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бойцы, вернувшиеся из зоны проведения СВО. На сборах он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актуализиро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прошедших горячие точки. Идея подобного обучения родилась в ветеранских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этой инициативе проявили и обычные жители.

Сертификаты об успешном прохождении первых инструкторских сбо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удь готов!» сахалинцам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живем в приграничном регионе. Это накладывает на нас особ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Каждый мужчина должен быть способен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ать отпор неприятелю, чтобы защитить свой дом и своих близких. Прохождение инструкторских сборов никак не отразится на привычном укладе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же сегодня они вернутся домой к семьям и приступят к своей обычной работе. На передовую отправятся только те, кто хочет вступить в ряды добровольце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сборов по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мужчины учились обращаться с оружием, маскироваться, выживать в лесу, строить укрепления, оказывать перв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бойцы освоили обширную программу и научились действовать в разных ситуациях. Что делать, когда наносят авиаудар, когда нападает живая сила противника? Как обустроить окоп, землянку или блиндаж? Как управлять беспилотником и как вести себя, если над вами работает беспилотник? Как эвакуировать раненного товарища? Даже если эти знания никогда н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 горячих точках, они будут полезны в жизни, – рассказал инструктор проекта «Будь гот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 и СВО» Станислав Калентьев.

С 17 июля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стартует и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Обучать земляков будут выпускники первых инструкторских сборов, прошедших на Успенском полигон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еспечило экипировку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боров. Ее они заберут с собой 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всем интересующимся базовый набор вещей,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в «тревожном чемоданчике».

–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Будь готов!»,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районн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В приемной главы направят к ответственн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В районах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на базе отделений ДОСААФ,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 полигонах, если таковые есть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пояс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Отметим, что участники сборов 18-20 августа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фестивалю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озрожденно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А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вторить инструкторские сборы на Успенском полигоне.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порядка 8 тысяч желающих из всех районов смогут пройти военно-спор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В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ах улучшат качество питьевой воды

Доступ к качественной питьевой воде получат жители сел Онок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Правда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сего – 2,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ая во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едутся активные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исте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Так, в селе Онок к работам приступили в начале июня.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трех водозаборных скважин, установка резервуаров чистой воды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нци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210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Будет проложено 10 километров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й водой более 900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иду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и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ведется закупка и поставка материал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оставка техники к месту работ.

В Правде возведение блочно-модульной станции очистки воды стартовало в конце июня. Проводятся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фундамента. Скоро начнется перенос имеющихся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установка н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торной подстанции.

С 1 августа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к монтажу конструкций и прокладке наружных сетей. Основ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блочно-модульная станция очистки воды – поступит на Сахалин в конце года. Новый объек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500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придет на смену устаревшему оборудованию, которое не отве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и обеспечит качественной водой более 1,6 тысячи человек.

– Проекта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нций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очистить воду до нормати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и повысить надежность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елах.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бъек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к ноябрю 2024 года,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Федоров.

Отметим,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на водозаборе установили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зервуара чистой воды емкостью 1240 кубометров каждый. С запуском этого объекта в дома Углегорска и села Ольховка должна бесперебойно поступать вода надлежащего качеств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ООО «РВК-Сахалин» вед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водозабора «Южный»,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м объектом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регионе. Его мощность – 2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Объект ЖКХ обеспечит чистой водой 6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Кроме того, в начале мая стартовало масштаб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тей водопровода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32 километра в западных жилых район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позволят обеспечить централизованным водоснабжением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в 2022 году на реализацию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ая вода» и одноим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8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завершили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водозаборе села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одозаборов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а также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Долинск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оставит 1,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Чистая в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с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최재형 선생 묘 복원 광복절에 부인 유해와 합장

기념사업회 이사장 "최 선생 부인 서훈 없어 봉환 비용 모두 사업회 부담" 최재형기념사업회-서경덕, "최 선생 부인 유해 국내 봉환 모금운동 개시"

올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고, 선생 묘도 복원돼 부부가 서울현충원에 합장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70여 년 동안 키르기스공화국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방치됐던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1952년 사망) 선생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 최재형 선생 163주년 탄신일인 이번 광복절에 맞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운동가묘역 108번(원래 최재형의 묘)에 합장하기로 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최 엘레나 여사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 키르기스공화국에서 1952년에 생을 마쳤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이 사실은 몇 년 전에야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배우자 유골이 있으면 현충원에 매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립묘지 매장법을 개정했으며, 국회 결의까지 마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부부가 현충원에 합장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해 봉환 비용이다. 정부의 유해봉환 비용 지원은 대상자가 국내 서훈이 있는 경우 가능인데, 엘레나 여사는 국내 서훈이 없어 기념사업회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념사업회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손잡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의 어려움을 접한 서경덕 교수는 기념사업회와 함께 최 지사 부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문 이사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중앙아시아가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있다"면서 "기념사업회는 유골 봉환 후 묘역에 기념비를 세워 한디아스포라의 증표로 삼으려고 하는데 열악한 재정으로 장학사업과 최재형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기념사업회는 유골봉환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누리꾼과 함께 모금을 통해 최 여사 유해를 모셔 온다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모금 운동은 '십시일반 프로젝트'로 1인당, 1만원씩, 1만명의 동참을 목표로 한다. 최재형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최재형 선생(우)와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사진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

이지를 참고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정을 알게 된 기업의 지원도 이어져, 티웨이항공(대표이사 정홍근)과 페이스북그룹(회장 민병도)은 유해를 모셔올 기념사업회 담당자 세 명의 항공 좌석과 유골을 모셔올 화물운송 서비스를 후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모두 독립운동과 한인 동포들을 위해 쏟아부었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직접 후원했다.

문 이사장은 "최재형 선생을 도와 평생을 내조하고 아들 둘과 사위들까지 목숨을 잃었는데 단지 서훈이 없어서 유골을 모셔오는 비용을 기념사업회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일류보훈을 내세우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평생 남편을 내조한 순국선열들의 아내에게도 국가가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모금 운동에 관한 사항은 최재형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choijaihyung.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541-9075)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 7일간 서울서 열려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주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후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의중)은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가 주관하는 '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2023 IKAA Gathering)'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7월 24일 밝혔다.

IKAA는 미국, 유럽 등지의 한인입양인 단체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단체로 9개국 14개 단체 1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입양인단체 (AKA-SF) 대표를 역임한 한국계 입양인 Tommy Gentzel 씨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임원진 18명은 모두 자원봉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KAA는 매년 한국-유럽-미국을 순환해 세계한인입양인대회를 개최하고 있

며,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코로나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올해 대회에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한인입양인과 그 가족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입양인공동체를 만들고, 탐색하고, 강화하는 방법의 재고'란 주제 아래 ▲입양과 관련된 연구 심포지엄 ▲국외 입양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토론 및 강연 ▲한인 입양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 상영 ▲푸드페스티벌 ▲어메이징 레이스 ▲서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를 후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회가 진행되기 3개월 전부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안내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부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통과돼 2025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입양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안내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와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등록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입양인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최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일원화, 입양기록물의 이관 등을 통해 입양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제4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 참석

재외동포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제41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김영근 센터장은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개교 40주년 이상 학교와 30년 이상 근속교사 대상 재외동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협력센

터의 사업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한글학교 교사들이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봉사해주시기에 차세대 한민족 정체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지난 6월 5일 설립된 재외동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초청·연수·교육·홍보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을 담당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대한민국이라는 말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연령에 따라, 관점에 따라 느낌이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인'이라는 말은 어색하죠. '대한민국어'라는 말도 이상합니다. 한국인, 한국어가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이어진 말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고, 제국은 다시 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며 많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 국명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덧붙이자면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 이름은 크게 세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고조선, 이씨 조선, 북조선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조선입니다. 각각 앞에 붙은 말들은 관점이나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려를 들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고려가 여기에 해당하고, 고려연방이나 남북단일팀 코리아도 모두 고려와 연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한'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진한, 변한, 마한의 삼한과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한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쪽에는 한국이 있고, 북쪽에는 조선이 있고, 단일팀은 코리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일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연령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1980년대에 정수라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한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입니다. 건전가요 풍의 노래였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라는 부분에서 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웠던 군사독재시절이었는데, 엄청난 희망가였던 셈입니다. 후에 이 노래는 정태춘 씨의 비판적인 노래 '아,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현실적인 가사가 충격적이었던 노래입니다. 두 노래를 함께 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더 많은 사람의 입에 올라가게 된 것은 역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짜짜짜 짜짜짜' 박수를 칩니다. 자연스럽죠. 대한민국이 응원구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자랑스러운 단어, 힘을 북돋는 단어가 된 겁니다. 축구가 4강에 오른 것인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4강이 된 것처럼 자신감도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한국은 스포츠나 문화, 경제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어갑니다. 바로 2002 월드컵 얼마 전에 아이엠에프 위기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대'가 들어 있어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겸손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국명은 멋있게 지어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보다 한국을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을 대일본제국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남들이 자기 나라에 '대'를 붙였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느낌을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밖에서 보는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조선 또는 남쪽, 남측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북한, 북쪽, 북측이라고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한이나 남조선이 자신 위주로 부르는 거라면 남쪽, 북쪽, 남측, 북측은 배려하는 마음도 담깁니다. 서로를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두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자연스레 통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그리 된 지 오래입니다만, 실제로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북측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칭이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쓸쓸하네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авторов также будет писатель Владимир Санги - основатель нивх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один из авторов реформы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автор нивхского букваря, учебника нивхского языка, учебников для нивхских школ, книг для чтения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издатель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в переводе на нивхский язык, -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Со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и».

Фрагменты из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фильме прочитает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Борис Щербаков. Режиссером выступит журналист и медиа-продюсер Антон Хреков, автор более 30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사할린 연금자, 사기꾼들의 '안전 계좌'로 900만 루블리 이상 이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사기꾼과 연락을 주고받아 거액의 돈을 잃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관리국 보도부에서는 사기꾼들이 연금자에게서 900만 루블리 이상의 금액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75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은 7월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본인의 개인 데이터 도난 및 자신의 이름으로 40만 루블리의 대출을 발행했다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후에는 "안전 계좌"라는 유명한 사기 방식이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화 상대가 알려준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들에게 대출을 주신해 달라 부탁하고, 개인 예금을 대화 상대가 준 '안전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했다"고 경찰 측에서 전했다.

이 연금자는 사기꾼에게 총 920만 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Пенсионер с Сахалина перевел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мошенников более 9 млн рублей

Пожилы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ишился крупной суммы денег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мошенниками. Они выманили у пенсионера свыше 9 млн рублей,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заявлением в полицию 75-летни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обратился 21 июля.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ему через мессенджер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ый сообщил о хищении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енсионера и оформлении кредита на его имя в размере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алее в ход пошла популярная легенда о «безопасном счете». Мужчине посоветовали снять сбережения со своего счета и перевести их на другой, который ему прислал собеседник.

«В дальнейшем заявитель, действуя по инструкции, оформил на свое имя кредит, попросил оформить своего сына кредит, взял личные сбережения и осуществил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ереводы на безопасный счет, указанный ему собеседником», - рассказали в полиции.

В сумме пенсионер отдал мошенникам 9,2 млн рублей.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사할린, 휴식하는 사람들의 텐트를 공격한 곰 사살

이즈멘치워에 호수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들의 텐트를 공격한 곰이 사살되었다. 이를 주 임업 및 사냥경리청 홍보실에서 전했다.

지난 7월 22일 토요일, 젊은 곰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텐트를 훼손했다. 휴식하는 사람들이 폭죽과 자동차 경적을 사용해 곰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곰에게 막대를 던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곰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 곰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에 곰을 사살하기로 결정했다고 사냥경리청에서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отстрелили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подрал палатку отдыхающих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подрал палатку отдыхающих на озере Изменчивом сахалинцев, ликвидировал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Молодой хищник вышел к людям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22 июля. Он повредил палатку на глазах у людей. Отдыхающие пытались прогнать его, используя фальшфейер и сигнал автомобиля, но безуспешно. Косолапый начал уходить, только когда в него стали бросать палк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едведь представлял угрозу жизни людей.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его отстреле, уточнили в агентств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 김포에 계시는 전수문 어르신께 드리는 축하문



존경하는 전수문 선생님!
85주년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새고려신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도움 주심에 항상 고마워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